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재수사 이뤄지나

1999년 11월 제주복초 인근 주택가에서 발생 사건 21년만에 “범인 안다” 주장 제보자 나와 경찰 “공소시효 지났지만 임의동행 수사 가능”

범인을 잡지 못 한채 공소시효가 만료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21년 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인물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2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당시 44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50분쯤 제주복초동 제주복초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의 가슴과 배에선 예리한 흉기에 세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또 왼쪽 팔꿈치에는 흉기에 관통당한 상처가, 오른손에는 차량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당시 부검의는 이 변호사 사인을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로 봤다. 왼쪽 팔꿈치에 난 관통상은 이 변호사가 피한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차량 밖에서 누군가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 변호사가 차량 안으로 피하려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나

머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2014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최근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21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제보자는 제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던 한 남성으로 당시 두목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했고,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한 것은 조직 내 동감내기 조직원이었다고 최근 국내 한 언론사와 만난 자리에서 고백했다.

그러나 범죄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남성이 이 변호사를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 입장에서 진술의 신

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제보자가 해외에 있어 만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강제수사는 못하지만, 제보자가 적극 협력해준다면 임의 동행 등 임의 수사 형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 진범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진범이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지난 1999년 사건 당시 이승용 변호사가 피살된 채 발견된 자가용을 경찰이 검사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대중교통서 마스크 쓰는데 어렵나...

경찰, 버스 운행 방해한 40대 여성 첫 입건

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 11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에 승차한 40대 여성 A씨가 기사의 승차거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할 때까지 약 30여분간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승객이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해상서 20대女 숨진채 발견

서귀포항 인근 해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50분쯤 서귀포항 서방 740m 해상에서 사람이 떠 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발견된 변사체는 A(27·충북 청주시)씨로 확인됐으며,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에 실종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A씨의 행적과 더불어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바람피운 남편 때린 결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린 부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동손상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여)씨와 B(36·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녀 사이인 이들은 2019년 4월 23일 병원 병실에서 A씨의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C(59)씨를 핸드백 등으로 때린 혐의다. 이들이 C씨를 때린 이유는 외도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제주 29~30일 다시 폭우... 최대 120mm

기상청 “강한 바람도 동반”

제주지역에 다시 폭우가 쏟아진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9일부터 제주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3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28일 예보했다.

이 기간 예상강수량은 30~80mm로, 남부와 산지 등 많은 곳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3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항공편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29일 낮 최고기온은 24~27℃, 30일 낮 최고기온은 24~25℃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비로 인해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계곡 주변 야영을 피하는 등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의 시설물도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야밤에 장비 착용해 문어잡은 2명 ‘경찰행’

경찰 “수산물 잡으려면 관련자격증 등 갖춰야”

밤에 자격 없이 문어를 포획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씨와 B(44)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맨손으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간에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으려

면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하거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이같은 요건을 갖춰지 않은 채 수트, 수경, 발판, 탐조등을 착용하고 문어를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야간 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다”며 “야간에 수중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 등과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해상서 불법조업 어선 2척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경남 통영 선적 소형선망 A(12t·승선원 14명)호와 종선 B(9.77t·승선원 3명)호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6시37분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A호 등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9시30분쯤 제주시 두모포구 북서쪽 4.6km 해상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이들 어선을 적발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대형선망과 소형선망 어선은 제주도 주위 7.4km 이내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체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성황 총 19개 직종에 115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주지부 주관으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지방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가구 제작, 귀금속 공예 등 정규 13개 직종을 비롯해 안마, 바리스타, 워드프로세서 등 시범 3개 직종 레저 및 생활기술경기 3개 직종 등 총 19개 직종에 115명의 기능보유 장애인들이 참가했다.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9월 22일~25일)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태윤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필요한 영양소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양유점착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요한 영양소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 · 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